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중등 지리 교과서에서의 독도 및 동해 교육*

서태열**

Education on Dokdo and East Sea in Secondary Geography Textbook from 1945 Liberation to 1950s*

Tae-Yeol Seo**

요약 : 1945년 해방이후부터 정부수립으로 국가체계가 급속히 잡혀가고 최초의 국가교육과정인 1차 교육과정이 공표되었던 1950년 대까지는 식민지 교육체제가 끝나고 우리나라 현대의 새로운 공교육이 형성되었던 시기였다. 교육과정과 교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교수요목기(1945~1953)의 지리교과서에서도 높은 영토의식으로 독도관련 내용들이 일찍부터 다루어졌고, 동해, 울릉도, 독도가 함께 다루어지는 가운데 대마도까지 확장된 영토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라는 별도의 항목이 만들어져 독도가 울릉도와 연결되어 다루어지는 전통이 있었다. 1950년대 시작된 1차교육과정기의 지리교과서에서도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 및 정체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일제의 침략적 근성을 경계하고 독도관련 내용이 증시되었으며, 해양주권과 영해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주요어 : 독도, 동해, 영토교육, 교수요목기, 1차 교육과정

Abstract :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ore aspects of contents related to East Sea and Dokdo Island in secondary school geography textbook from 1945 Liberation to 1950s, and to analyze how education of East Sea and Dokdo Island has been implemented in secondary school. Education of Dokdo Island & East Sea in teaching syllabus period was implemented actively in spite of disturbance and disorder right after 1945 Liberation. Geography textbook documented and guarded against Japan's ambition of territorial infiltration. And dealing Dokdo Island under the topic of “Ulleungdo and Dokdo” has made a kind of tradition in geography textbook description. Moreover Tsushima (Daemado) was dealt as a territory of Korea in this period. From 1950's Dokdo Island & East Sea was dealt more in details during the 1st official National Curriculum (NC). At that time Korea's willingness for protection of territory was strongly expressed as well as guarding out Japan's ambition.

Key Words : Dokdo Island, East Sea, Territory Education, Teaching syllabus period, 1st National Curriculum

I. 서론

전통적으로 지리 교과는 그 국가의 영토교육을 주로 담당해왔으며, 그 국가의 영토내 여러 지역들의 지역적 차이와 특성을 인식하게 하여 향토에서 지방 및 지역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애와 장소감을 키워 주었다. 더 나아가 지리 교과는 장소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아정체성과 국토애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지리교육은 자국민의 국토애, 영토 의식을 키우는 국민교육의 기초가 되어왔으며, 이러한

*2010년 연구되어 2011년에 마무리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tyseo@korea.ac.kr)

기초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는 국가적인 관심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리교과서는 국민교육, 영토교육의 증거와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의 영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리교과서를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토와 관련된 논쟁들이 부각되면서 독도와 동해에 관심이 커지면서 영토교육의 재성찰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왔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 지에 대해 깊은 성찰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동안 영토 및 영역 교육에서 독도 및 동해의 상징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동해, 울릉도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는 등 부침을 거듭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의 영토침탈을 경계하면서 공교육에서의 교과서를 통한 영토교육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서야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독도 및 동해관련 교육을 체계화하려는 노력들 즉 독도 및 동해와 관련한 영토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해져왔으며 그 특성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독도 및 동해관련 영토교육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려는 노력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영토의 의미와 영토 교육의 의의에 여러 가지 논의를 바탕으로 영토교육에 대한 접근 모형의 제시하는가 하면 기존의 사회과의 교과용 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용 자료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시도되기도 하였다(서태열 등, 2007). 그리고 영토 교육을 실제적 차원으로 고려하여 학교급 별 동해와 독도에 관한 영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동해 및 독도에 관한 영토 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연구(서태열 등, 2009)도 있었다. 그리고 사회과라는 교과목의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교재에 대한 분석은 권영배(2006)에 의해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특정시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을 담당하였던 주된 교과가 지리라는 점에 착안하면 특정한 시기에 지리교과서에서의 영토교육이 어떻게 실행되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특히 일제로부터의 해방직후는 식민지시대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의 현대식 교육이 시작되었던 시점이므로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시기와 비교할 때 강력한 독립의지와 함께 영토수호의

의지가 매우 강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의 독도와 관련된 영토교육의 내용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방이후 교과용 도서에 나타난 독도 및 동해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독도교육 및 영토교육의 내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업화에 중점을 두었던 196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영토교육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다고 보고, 연구 시기는 해방이후에서 1950년대까지로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해방직후 교수요목기(1946~1954) 지리교과서의 독도내용

1945년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교육을 보면, 미군정기의 긴급조치 시기(1945~1946)에 이어서 1946년에 제시된 교과목의 대략적인 목차만을 제시한 교수요목에 의해서, 중등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해방이후 혼란이 수습되면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문교부령에 의해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성립된 1954년 제1차 교육과정 전까지 실시되었다.

교수요목기의 중등학교 교재는 한편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그 용법을 학교 급에 따라 차별화하여 제시하고 있었는데, 지리교과서를 보면 그러한 형식이 잘 나타난다. 예를 들면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조선지리』(정홍현·이기섭·이부성, 정음사)의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를 보면, 교과서는 중등학교로 표기하고 초급중학에서의 사용법과 고급중학에서의 사용법을 별도로 적시하여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에 사용된 교과서의 확보가 매우 어렵지만, 확보가 가능하였던 교수요목기에 발행된 것으로 알려진 여러 권의 교과서 중에서 『조선지리』 등과 같은 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울릉도, 동해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조선지리』(정홍현·이기섭·이부성, 정음사) 1946년판 교과서를 보면, '위치와 영역' 단원에서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의 위치를 동서남북의 4극으로 나타내고 있다. 극동을 "경북 울릉도 동단 동경 130도 57분"으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경도를 나타내는 동경 130도 57분은 독도의 경도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즉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만 지명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았을 뿐

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4극을 표현하면서 모두 동단, 서단, 남단으로만 표기하는 통일된 표기일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해인 1947년판 이 교과서를 보면 분명해진다. 1947년판에는 지명이 아니라 “동단”으로 표기하던 것을 “죽도”¹⁾라고 명칭을 사용하여 독도를 표기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국토의 4극의 표현 방식을 “마안도, 마라도”와 같이 구체적인 지명으로 모두 표기하고 있어서 영토 표시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보였다고 하겠다. 이는 1946년경에 있었던 독도 및 영토관련 사건들에 의해서 인식이 높아졌거나, 저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것을 보여준다. 1947년의 이 교과서에 나타나는 지명이 해방이후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린 독도에 대한 최초의 표시이며, 당시에는 “죽도”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미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돌려받은 명백한 우리의 영토임을 인지하고 있고,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시아(Asia) 대륙 동남쪽에서 동조선해와 황해 사이에 남쪽으로 쭉 뻗어나간 반도이다...”⁽⁷⁾라고 하며 동해를 동조선해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우리땅 조선의 동쪽에 위치한 바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의 구체적인 명칭임을 알 수 있으며, 일부에서 비판하는 바와 같이 동해가 막연한 동쪽방향의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동조선해를 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동조선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10쪽에서 해양에 대한 언급에서도 “동조선해안”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이나, 이 교과서에서 사용한 “동조선해”가 조선의 남쪽에 위치한 바다인 “남조선해”로 대비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본다. 또한 영남지방의 지방지에서 “동조선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도 울릉도는 이미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지는 편이었다. 영남 지방의 동부산지에서 경주, 포항, 방어진, 울산 다음으로 울릉도를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면, 중요한 지역으로 인지하였다고 하겠다. 이 교과서의 29쪽에서는 울릉도의 위치, 면적, 지형, 농업, 어업, 교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2개 문장으로 울릉도를 설명하고 있다. 울릉도의 지형에 대한 설명을 보면, “동조선해 동남쪽 바닷가운데에 있는 외딴 섬으로 넓이 약 73m²(넓이가 정확하지 않음)인 화산

암으로 된 화산도”(37)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오늘날처럼 지형적으로 독도와 긴밀하게 연결된 지형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²⁾.

한편, 이 교과서에 실린 지도의 대부분은 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남지방도와 조선의 지질구조도에서 울릉도는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음으로 『중등 사회 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노동양, 1949, 탐구당) 교과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위치에서 “... 조선반도의 동쪽에는 동해가 있고, 서쪽에는 황해를 끼고 중화민국과 마주 보고 있으며,...”⁽¹⁾’라고 하며 동해를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4극으로 ‘울릉도 독도’의 경도를 표시하였다. 영남지방의 지방지에서 울릉도, 독도의 지명이 언급되었으며, “울릉도는 바다위에 위치한 만치 해양성 기후를 이루어 겨울에는 부산보다도 따뜻하고, 년우량은 1700mm이나 된다.”라고 하면서 울릉도의 기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영남지방의 지방지의 단원에서 ‘울릉도와 독도’ 장을 할애하여 강조를 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에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 단원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의 지도,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면적, 지형, 산업, 역사, 독도 영유권 문제를 2쪽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한 60해리 가면 독도(獨島)라는 무인도가 있다. 이 섬은 두 개의 큰 섬과 여러 작은 섬으로 되었는데 해식지형을 이룬다, 물개 등이 살아 이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 이 섬의 영유(領有)에 관하여서는 일본과 사이에 문제가 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영토이다”(152-153)

이를 보면 이 교과서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교과서는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서술하고 있는 해방이후 최초의 교과서라고 할 수도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라는 제목으로 지리 교과서에서 지역명칭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해안에서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그림지도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의 교과서에서의 우리의 영토와 관련된 지도표

기에서 특별한 점은 대마도를 우리의 영토처럼 거의 함께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하나의 트렌드처럼 보인다. 즉 이후에 다룰 정갑의 교과서에서도 대마도의 귀속문제를 “동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고 대한해협을 지나 대마도가 있다.”(136)와 같이 매우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해방직후에 교과서 저자들이 도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매우 높은 영토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중학교 사회 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 생활』(정갑, 1950, 을유문화사) 교과서를 보면, 노도양의 교과서가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깊이 있게 다루는데서 더 나아가 대마도의 귀속까지 다루는 매우 강한 영토의식이 드러내고 있다. 즉 당시의 지리 교과서 저자들은 영토주장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대마도에 이르기까지 영토주장에 대한 매우 강한 적극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나라 단원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Asia) 대륙의 동부에 있어, 북에서 남을 향하여, 동해와 황해 사이에 돌출한 반도이다.”라고 서술하여 동해를 언급하고 있으며, 울릉도의 동단의 수리적 위치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지의 ‘남부 지방’의 단원에서 울릉도의 사진과 함께 울릉도의 위치, 면적, 지형, 산업, 교통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울릉도에서 동쪽을 향하여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가장 동쪽(동경 131° 57′) 섬인 독도(獨島-주위 2km)가 있다”(143)라고 서술하면서 그림 2와 같이 독도의 사진³⁾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 단원의 지질, 임업에서 울릉도를 언급하였으며, 동해안의 수산업을 서술하고 있다⁴⁾.

그리고 『중등 사회 생활과 최신 우리나라 지리』(이지호, 1953, 민교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동남부 지방’의 단원에서 ‘동해의 고도 울릉도’(124)라는 제목으로 1개 단락에 걸쳐 울릉도의 형성원인, 지형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독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이 단원의 제목을 보면, 동해를 단순히 동해안 주변의 범위를 지닌 바다가 아니라 울릉도가 속한 주변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모두 동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또한 동해의 한 부분으로서 울릉도의 특수성에 대해서 기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동남부 지방’의 단원에서 기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외 우량 분포에 있어서 특수한 지방은 울릉도이다. 울릉도의 1년 우량은 1600mm에 달하고, 또 계절에 따른 변화는 극히 적으나,

특히 겨울의 우량이 가장 많아 1년 우량의 30% 이상을 차지한다.....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많은 지역을 형성하였고”라고 하여 울릉도의 특수한 기후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당시의 교과서들의 관련 주제들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교과서와 매우 유사하게 독도, 울릉도, 동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서로 관련되어 다루어지고, 위치와 영역, 수산, 어업 등 산업부분, 자연지리와 관련된 화산지형, 해안과 섬 또는 도서지방, 각 지방의 생활 중 남부지방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영역에서 독도, 울릉도, 동해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1 참조). 그리고 매우 쉽게도 정확한 독도의 사진이 게재 되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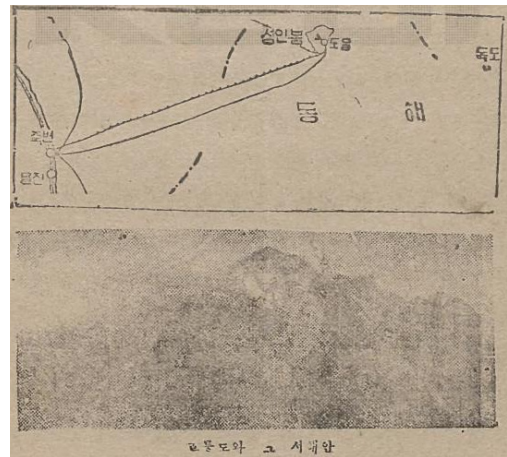


그림 1. 동해안과 울릉도 및 독도 연결항로를 나타낸 그림지도
출처 : 노도양, 1949: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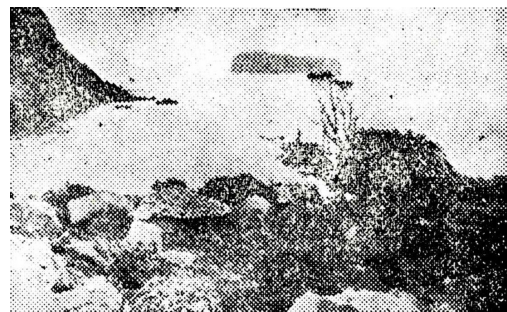


그림 2. 해방이후 지리교과서에 최초로 등장하는 독도사진
출처 : 정갑, 1950:143

표 1. 교수요목기에 독도, 울릉도, 동해관련 내용이 다루어졌던 주제들

교과서명	주제	위치와 영역	해안	지방지	화산 지형	지질	임업	수산업	기후	지도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조선지리(정홍현·이기섭· 이부성, 1947, 정음사)		동조선해 지명, 우리나라의 동단의 수리적 위치	동해안의 울릉도 지명	영남지방의 동조선해 지명, 울릉도 설명	-	-	-	-	-	울릉도 표시
중등 사회 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 (노도양, 1949, 탐구당)		동해 지명	-	영남지방의 울릉도, 독도 지명, 울릉도 기후, 울릉도와 독도 단원, 동해어장	-	-	-	-	-	-
중학교 사회 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 생활 (정갑, 1950, 을유문화사)		동해 지명, 울릉도 수리적 위치	-	남부지방의 울릉도, 독도 설명 및 사진	-	울릉도 지명	울릉도 지명	동해 어장	-	-
중등 사회 생활과 최신 우리나라 지리 (이지호, 1953, 민교사)		-	-	동남부 지방의 울릉도 단원, 동해어장	울릉도 지명	-	-	-	울릉도 강우량	-
중학교 사회생활과 지리 부분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을유문화사, 1949)		-	-	-	-	-	-	-	-	-
중등 사회 생활과 최신 자연환경과 인류생활 (교학문화사, 1950)		-	-	-	-	-	-	-	-	-

III. 1차 교육과정기(1954~1963) 지리 교과서에서의 독도교육의 내용

6·25전쟁이후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된 우리나라의 교육은 1954년에 제1차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으로 제정되면서 보다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구 및 교육시설은 물론이고 교육용 도서는 태 부족이어서 당시의 교과서는 매우 희귀하다. 이 시기의 지리교과서는 중학교의 경우 교과서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중·고등의 내용이 혼재된 형태의 교과서로는 『최신 국토지리』(최복현, 1956, 민중서관)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며,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이지호, 1956, 을유문화사)와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김상호, 1956, 일조각)의 두 개의 교과서만이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우리나라 지리를 다루는 지리 교과서는 교수요목기처럼 중, 고등의 내용이 혼재된 형태의 교과서로는 『최신 국토지리』(최복현, 1956, 민중서관)가 있다.

이 교과서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내용들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⁶⁾.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남부지방의 일부로써 소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장을 지키고 국토를 방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독도침략에 대한 야욕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토수호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울릉도”라는 주제로 기술된 내용의 말미에 독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면서 울릉도관련 사진은 게재하지 않은 것과 대비적으로 독도 사진(그림 4 참조)을 실고 있어 독도가 매우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남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독도는 바위가 많은 무인도 이지만 국토방위상에 중요한 곳이다. 원래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섬을 탐낸다는 것은 그들의 침략적 근성에서 나오는 버릇이다”(최복현, 1956:107).

또한 이 시기에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의 끝의 한 부분으로서 “131°52”(독도)로 표기하여 동쪽의 끝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던 것은 당시의 워크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현대사, 1960, Work Book, 1).

한편, 이 교과서에는 독도와 동해와 관련하여 영토와

영해에 대한 인식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자료가 실려 있다. 즉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해양주권선과 1952년에 이승만이 선포한 평화선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으며, 독도는 이 해양주권선 안에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양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의 해양주권의 범위를 독도는 물론 포함되며 동경 130도까지 확장하고 있어 당시의 확고한 영토 및 영해인식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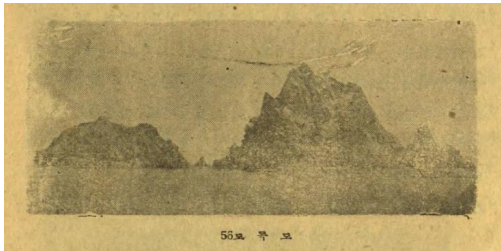


그림 4. 독도사진

출처 : 최복현, 1956:107

* 이지호의 <인문지리>에 나오는 사진과 상당히 유사한 각도로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의 독도 사진과는 달리 서도 쪽에서 동도 쪽을 향해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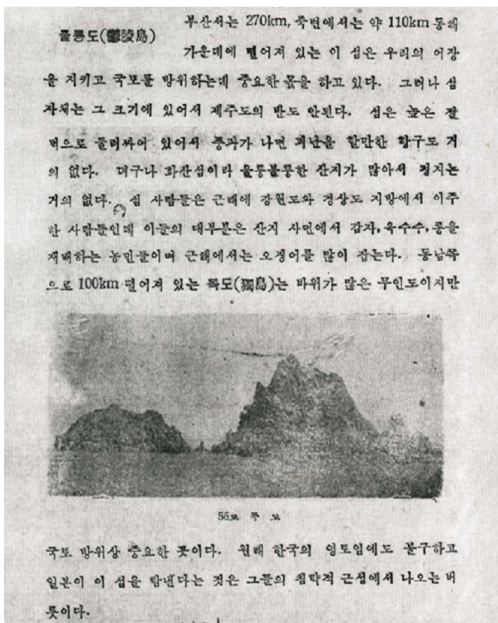


그림 5. 1차 교육과정기 중등 국토지리 교과서의 울릉도, 독도 내용의 사례

출처 : 최복현, 1956:106-107

으며, 이를 나타낸 지도는 그림 6과 같다.

“우리 한국은 우리 근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가의 예에 따라서 해양주권을 정하였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모하게도 이 주권선을 넘어서 자주 우리의 어장을 노략질하고 있다. 이 어장은 60만 어민의 생명선인 동시에 우리의 중요한 식료의 생산터인 것이다. 영토와 마찬가지로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최복현, 1956:45).

한편,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이지호, 1956, 을유문화사)와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김상호, 1956, 일조각)의 두 개의 교과서를 보면, 전자나 후자나 모두 1차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고등학교 교과서이나 대단원의 제목은 유사하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두 교과서의 1단원의 명칭은 동일하게 “자연과 인간과의 교섭양식”이 주제인데, 표 2와 같이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계통지리처럼 기술하나 후자



그림 6. 제1차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해양주권선(평화선)

출처 : 최복현, 1956:45

는 우리나라 지리를 많이 다루고 있다.

이 두 가지 교과서에서 전자의 교과서는 후자의 교과서와 달리 독도관련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는 모습이다. 즉 전자의 교과서에서는 매우 특별하게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독도를 별지로서 포함하고 있으며,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화산도이며 무인

도이다. 어업과 국방상 중요한 섬이다”라고 기술하여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 (이지호, 1956, 을유문화사)). 이는 제1차 교육과정기에도 교과서의 저자들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학생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매우 짧은 진술이지만 독도의 모습과 중요성을 간략하게 잘 기술하고 있었다. 또한 이 교과서의 독도 사진은 위에서 언급한 최복현의 지리 교과서의 흡사한 것으로 사진의 앵글이 거의 같으며 다만 사진범위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후자의 교과서의 경우에는 독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표 2. 1차 교육과정기 <인문지리>교과서 내용비교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 (이지호, 1956, 을유문화사)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 (김상호, 1956, 일조각)
제1. 인간과 자연과의 교섭 1. 세계 각지의 생활양식 2. 인간과 자연과의 교섭 3. 인간의 거주지 4. 가옥과 환경 5. 취락의 성립과 발달 6. 취락의 형태와 기능 7. 지도의 이해	단원 I 자연과 인간과의 교섭양식 제1장 지리적 입장에서 본 자연과 인간 제2장 우리나라의 벼농사와 보리농사 제3장 우리나라의 논밭분포 제4장 우리나라의 기후 제5장 취락의 위치와 형태 제6장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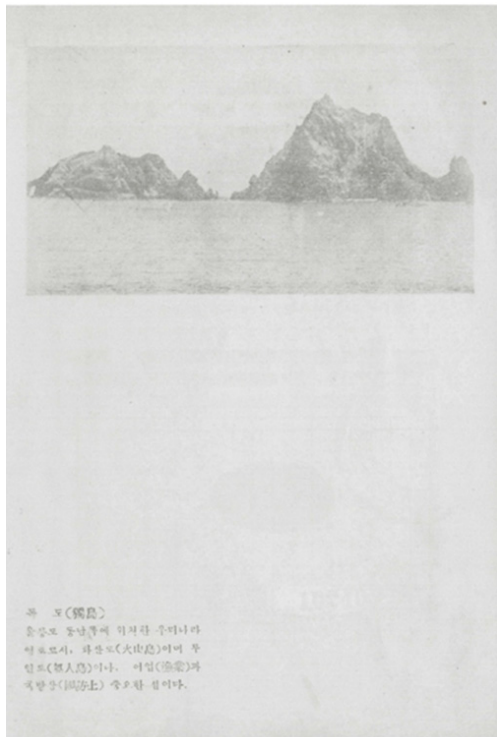


그림 3. 고등학교 지리책에서 별지로 다루어진 독도의 사진과 설명

출처 : 이지호, 1956

VI. 결론

본 연구는 독도 및 동해와 관련한 영토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방직후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교과용 도서인 중등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독도 및 동해 관련 내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복 직후에서 1950년대까지의 시기를 보면 독도 및 동해교육은 영토 및 영해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졌다. 이 시기는 1945년 해방직후 미군정기를 거치고 1948년 정부수립으로 혼란상태를 극복하고 국가체계가 급속히 잡혀가던 시기로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였던 시기이면서도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 등이 매우 강조되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교수요목기(1945-1953)에서도 독도관련 내용들이 일찍부터 다루어지는 등 높은 영토의식을 보여주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수요목기의 지리교과서는 일제의 영토침탈야욕을 기록하고 경계하였고, 독도를 “울릉도와 독도”라는 주제로 울릉도와 함께 기술하는 전통도 있었다. 동해안에서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그림지도로 제시하는 가하면, 대마도에 이르기까지 영토주장에 대한 매우 강한 적극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둘째, 해방직후의 지리교과서에서 보여준 독도관련 영토교육 및 영해교육의 내용은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졌던 1차 교육과정 기부터 공적인 제도 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 1차 교육과

정기의 지리교과서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전통에 따라 남부지방의 일부로써 주로 “울릉도와 독도”라는 소주제 하에서 소개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상술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어장을 지키고 국토를 방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한 해방직후처럼 일본의 독도침략에 대한 야욕에 대해서도 경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국토수호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심지어는 울릉도의 사진은 없어도 독도의 사진을 실어 독도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1차교육과정기(1954-1963)에서도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 및 정체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일제의 침략적 근성 때문에 독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중시하였고 또한 해양주권과 영해수호 의지를 강하게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직후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지리교과서들을 살펴보면,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던 시기였으므로 정확성이나 자료 부족은 있었으나 독도, 동해와 관련된 강한 영토교육 내용이 강조되어 기술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註

- 1) 당시 독도를 죽도로 표기한 것은 일제 식민지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제로부터 해방직후 죽도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2) 이러한 점은 당시 독도 및 동해에 대한 과학적 연구성과가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당연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이 사진은 지리교과서에 나타나는 최초의 독도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독도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 4) 그리고 이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지도에서는 사진의 경우처럼 울릉도와 독도는 동시에 표시되지 않는 단점도 보이고 있다.
- 5) 이 교과서에 실린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다.
- 6) 다만 교과서에서 사용된 지도들에서는 울릉도까지는 매우 상세하게 표시되지만 독도를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참고문헌

- 권영배, 2006, “중등학교 사회과 ‘독도교육’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36, 155-156.
- 권혁재, 1991, “국토지리: 왜 배워야 하나?,” 지리학, 26(3), 253-258.
- 김기범, 2005, “독도영유권 갈등과 일본의 보수화 경향,” 정점과 연구, 159, 28-33.
- 김병렬·나이토세이츄, 2006, 「한일 전문가가 본 독도」. 다미미디어.
- 김상호, 1956,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 일조각.
- 김주택, 2007,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5, 133-184.
- 나홍주, 2000,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법서출판사.
- 남호엽·김일기, 2001, “지역학습에 있어서 민족정체성과 지역정체성의 관계,” 대한지리학회지, 36(4), 483-494.
- 노도양, 1949, 「중등 사회 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 탐구당.
- 동북아역사재단, 2008, 「우리의 소중한 땅 독도」.
- 서태열, 2004, “세계화, 국가정체성 그리고 지역정체성과 사회과교육,” 사회과교육, 43(4), 5-29.
- 서태열·김혜숙·윤옥경, 2007, 「독도 및 울릉도 관련 영토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고서.
- 서태열·박철웅·이경한·윤옥경·남호엽·조철기, 2009, 동해 및 독도에 관한 영토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6, 「독도를 보는 한 눈금 차이」, 선.
- 윤옥경, 2006a, “해양교육의 중요성과 지리교육의 역할,” 대한지리학회지, 41(4), 491-506.
- 윤옥경, 2006b, “해양교육과 영토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61-63.
- 이기석, 2006, “동해해저지명 분쟁과 영토교육,”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1-10.
- 이기섭·이부성·정홍현, 1947,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조선지리」, 정음사.
- 이지호, 1950, 「최신자연환경과 인류생활」, 교학문화사.
- 이지호, 1953, 「중등 사회 생활과 최신 우리나라 지리」, 민교사.
- 이지호, 1956, 「고등학교 사회과 인문지리」, 을유문화사.

임덕순, 2006, “지리교육에 있어서 영토교육의 중요성,” 한
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11-13.
정갑, 1949, 「중학교 사회 생활과 지리부분 자연환경과 인
류생활」, 사조사.
정갑, 1950, 「중학교 사회 생활과 지리부분 우리나라 생활」,
을유문화사.
조선형·김귀선, 2002, “초·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의 해양
교육 내용 연계성에 관한 연구,” 청주교대 과학교육
연구소 논문집, 23, 1-20.
최장근, 2007, “일본의 주변 3국과의 영토분쟁의 특성: 조
어제도, 독도, 쿠릴열도 남방 4도를 중심으로,” 일어일
문학, 35, 383-401.
최복현, 1956, 「최신 국토지리」, 민중서관.

교신 : 서태열,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이메일:
tyseo@korea.ac.kr)

Correspondence : Tae-Yeol Seo, 136-701, 145 Anam-ro,
Seongbu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tyseo@korea.
ac.kr)

투 고 일: 2012년 6월 4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20일

투고확정일: 2012년 6월 21일